

하늘이 무너져도 주장자 있는 사람 허허 웃을 수 있어

29면에서 계속

본을 믿도록끔 자기를 다지기 위해서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그냥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스님: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나오시든지 나오시는 건 다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어도 천차만별의 차원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앞서 오는 사람이 있고 뒤에 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있듯이, 지금 그렇게 거사님이 말한 거와 같이 나를 다지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세상을 알기 위해서 저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 우리가 믿는 거는 자기 선장을 믿으면서 해야 될 때, 귀신이 보인다 이런 것도 나를 알기 하기 위해서니 감사하구나! 그리고 보아지, 그걸 귀신 보이는 걸로 즐거워서 그러로 쫓아간다면 아니 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일거수일투족이 이 마음 안에 안 들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배라고 하죠. 그 속에는 젓은 거 마른 거, 더러운 거 깨끗한 거, 또는 좋은 거 나쁜 거, 높은 거 낮은 거,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자체를 내가 잘 생각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게 해야지요. 그냥 그렇다고 근심 걱정을 해 가면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간다고 보면 인의롭고 여유 있고 지혜롭고 자비한 그 마음으로 남을 해롭게 안 하고 또는 가정에서도 부드럽고 남의 탓을 안 하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저절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위로는 상세계에 통신이 되고 아래로는 중생들과 같이 또 접보해서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걸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듣지 않는 사람이 없다. 색도 듣고 하다못해 개구리도 듣고 있다 이 소립니다. 내가 마음먹은 거를 그렇게 듣고 있는 이가, 듣고 있는 자들이 이 허공에 딱 차 있기 때문에 바로 남이 모른다고 하는 그 생각이 어리석다 이겁니다. 그러나만큼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면 모두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 이렇게 생각을 내 준다면, 모든 거를 다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내 준다면 거사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죽어갈 때도 다 이렇게 살려 준다 이거야. 그게 한순입니다. 한 마음, 한순, 한발로 닦는다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정신세계의 모든 거를 모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듣지 않고 보지 못하고 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가둬 두고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을 갖는다면 세세생생을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고 하고 있었어요. 허허허. 그러니까 묻는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물으셨으니까 또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답합니다. 이제는 경계가 그렇게 오면 절대적으로 속지 마시고 그 안에 다시 그렇게 편안하게 놓으신다면 그 곱이 되돌아올 겁니다.

질문자(남): 살생의 인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 공부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 생물들을 제가 살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물가에 살았기 때문에 수 많은 고기를 잡았고 재미로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뱀을 한 마리 죽이면 죄를 하나 없앨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뱀을 때려잡아 죽이기도 했고 그 이쁜 몸을 이끌고 굴에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또한 수많은 개구리를

에다가 모든 거를 일임하고 그 생각을 깊이 측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몸과 그 모습과, 즉 죽이는 모습 그것과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돌아다니게 자기한테로 하나로 끌려놓으면 그냥 이거는 인간으로서 천도가 될 것이며 또 그 생명은, 모습은 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 양면으로 쓰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영 모르고 잡아 죽이거나 그러하면 하나하나가 더 부풀어 올라서 크게 죄업을 짓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생명을 마구 죽였으니까. 그런데 백정이 수십 년을 백정 노릇을 하다가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서 백정 노릇을 그대로 하면서도 그 많은 생명을 죽였는데, 몇십 년 전부다 죽였는데 지금 현실에 그냥 하나로 돼서 모두가 천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싹 없어진 거죠. 한생각에, 한 깨달음에 그냥 멀고 가까운 게 없이 그냥 다 한순간에 해치워 버린 거죠. 그렇게

더럽니다. 왜냐하면 자기 군사가 적군인 줄 알고, 그렇게 잘못 보여 가지곤 자기 군사들을 자기네들이 다 죽여 버려드립니다. 이러한 이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모범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히 급할 때 그것도 응용하는 거지 급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부처님께서는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이기고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쪽에 천 명이 자기네들끼리 다 죽이고 한 다섯 명 남았는데 그때서야 눈이 떠지고 귀가 뜨이고 아, 우리 국민들도 잘살아야 되고 저걸 보니깐 아주,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바로 사람들이 뭍됨에 의해서 나라도 섬기게 되는구나.' 하면서 뉘우쳐서 그 나랏를 잘 섬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들이 지금 생명 하나를 봐도 그게 내 생명과 같아서 애절하게 생각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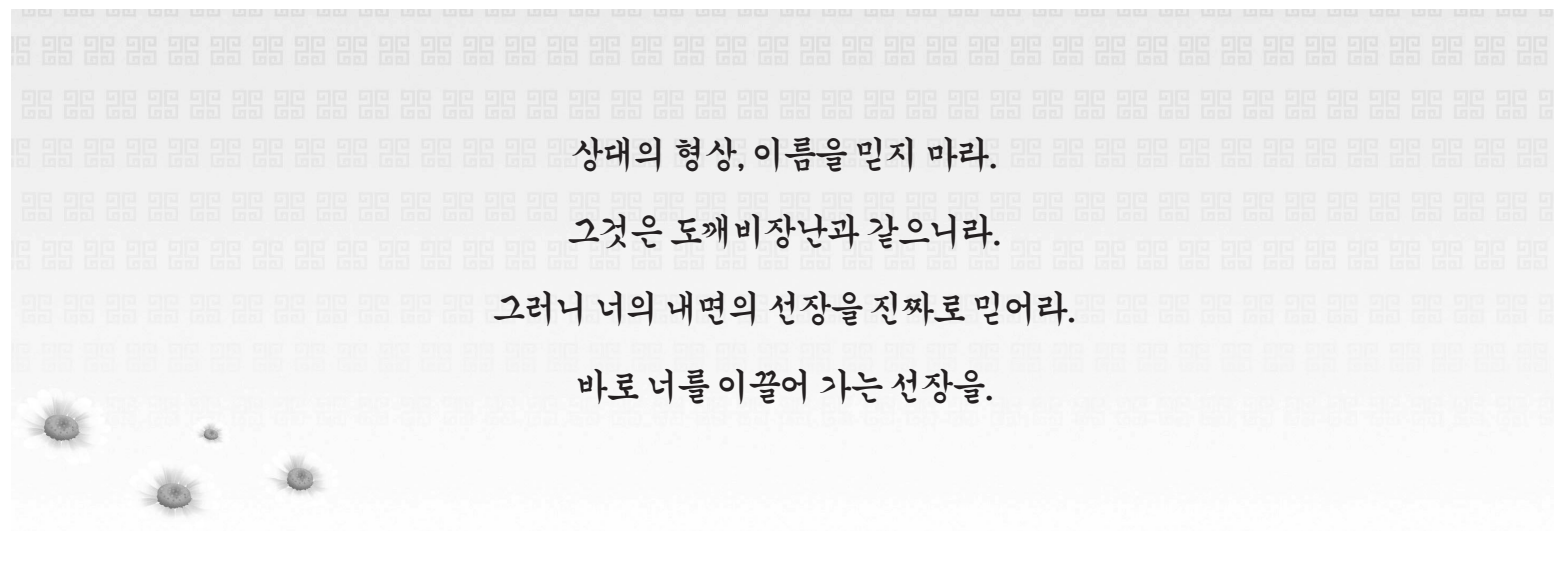
한 게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안 해 놓으면 무질서하게,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도끼 들고 갈 겁니다. 아미, '천자에 과거에 너 이랬지?' 하고... 하하, 그냥 무조건 알게만 해 놓으면, 이 수행을 거쳐서 그거를 알아야 오히려 더 불쌍하게 생각하고 더 어루만져 줄 겁니다. 원수라도,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는데 그거를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나마도 듣고 가고, 저놈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고 하하하, 아마도 복수를 하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한테 열쇠를 맡기는 게 아니라 높고 낮음을 다 돌로 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 모두 일체를 다 놓고 사는 사람, 여여하게 그냥 놓고 그냥 갈 뿐이고 들을 뿐이고 볼 뿐이다 하는 그런 사람 앞에 바로 열쇠를 맡기게 되고 바로 그런 걸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하하, 이런 겁니다.

질문자(남):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큰 스님께서 대구 개구리소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주인공! 너만 이 할 수 있다.'는 관을 여러 사람들이 끌어다도 꼭 하라고 그렇게 일러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계기로 해서 뭐 많은 하지 않았지만 생각나는 대로 계속 그런 개구리 소년이 제 몸을 대신해서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그 주인공 자리에서 계속 관을 하고 가고는 있습니다. 그 소식을 좀 궁금합니다.

권스님: 그런데요, 그것을 마음으로 억지로 끌어 잡아당겨서 할 양으로 하지도 말고요. 또 내버릴 생각도 하지 말고요. 그냥 내 몸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 몸이 이런가 보다 하지도 말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 몸과 결부시키고 내 고통을 그 고통과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모든 거를 그저 무심으로서 모두 결과 좋게, 예를 들어서 모습이 잘못되었을 시에는 그 마음을 건져 주고, 우리가 언제든 한번은 다 죽죠. 어려서 죽어도 죽었다면 마음을 건져서 천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건져서 천도할 때는 그 소년들은 꼭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모두 짊어지지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모르고 짓는 거는 모르고 전부 무마가 될 수 있다. 길잡이가 있다면, 그래서 마음을 건져 주는 겁니다. 나는 그 소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봅니다.

질문자(남):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문은 1996년 12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신문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의 형상, 이름을 믿지 마라.

그것은 도깨비장난과 같으니라.

그러니 너의 내면의 선장을 진짜로 믿어라.

바로 너를 이끌어 가는 선장을.

잡았고 그걸 팔기도 했고 밟아서 죽는 소리가 좋아서 죽이기도 했고 수많은 개구리를 잡아다가 큰 통에다 끓여서 닭에게 던져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나고서 생각을 해 보니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주인공, 그 인연들이 다 좋은 인연으로 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밖에 없다.' 하고 물려서지 않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들에 대한 그 생각이 일어났을 적에 어떻게 생각을 바꿔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권스님: 죄가 안 되고 되고는 그 생각 차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안 되고,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 공한 도리를 스스로서 알면서 우리가 둘 아닌 도리를 행한다면 첫째, 아무렇게나 남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앞에 닦은 거, 부모를 보양을 한다든가 윗 사람을 보양을 한다든가 뭐를 위해서 산 목숨을 죽이게 됐을 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

해치워 버린 것과 같이 대도 그렇게 했어도 지금 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생명이 귀중하면 남의 생명도 귀중하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가신다면 그거는 다 무효가 됩니다. 왜 무효가 되느냐? 지금 알았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알았으니까 그 영령은 대의 마음 속에 전부 하나로 들어가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으니까 연방 들어갔다 천도가 되고 연방 들어가서 천도가 되고 이러는 깨달음에 그것이 모두가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난리가 나서 싸우는데 군사가 이쪽은 백 명 밖에는 안 되고 저쪽에는 천 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의 군사가 적으니까 그 군사를 이끄는 대장이 간곡히 청했습니다. '주인공, 당신만이 꼭 이기게 할 수 있고 이 군사들을 용기 있고 의욕 있게 살게 해 주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모두 구해 줄 수 있습니다. 내 형제요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아주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청했더니 저쪽 군사의 마음이 전부 해이해져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됐

줄 알아야 그런 뭍됨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죽어도 천도가 된다 이라고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리만큼 왔을 때에 마다하지 말라 한 거지, 강제로 일부러 때려 죽이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온 거, 내가 꼭 해야 될 거를 마다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건 왜? 벌써 천도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뛰어든 건데, 벌써 알고 뛰어든 건데 그거를 오히려 마다한다면 알고 뛰어든 것 그 영령이 얼마나 나가 막히겠습니까?

간혹 이런 수가 있죠. 이웃집에 죽은 분이 나 좀 잘 좀 해 달라'고, '스님한테 가서 내 말만 해 달라'고 곁에 나타나서 간청을 하더라고요. 그런 예도 있듯이, 그래서 그 소리를 말만 들어도 자기는 되겠으니까 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와서 간청해서만이 우리가 그걸 알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신세계의 모든 이치를 모르시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라고 하시니까 답답

열두 달 마음 농사의 풍경과 대행 스님의 법어가 함께하는

2015 마음 다이어리

산뜻한 연둣빛 표지로 새롭게 출시된 2015년 다이어리에는 대행 스님의 말씀과 박희진 작가의 그림들이 함께 실렸습니다.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 가는 공간 - 마음 다이어리와 함께 하루하루 변화해 가는 '나'를 발견해 보세요.

판매처: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구입가: 13,000원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제품 상세보기: 「한 그루의 숲」 검색 ⇨ 「숲속가게」 클릭

2015 마음 다이어리가 나왔어요!
 열두 달 마음 농사, 지으러 갑니다~

그림: 박희진